

# 20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201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일간지

〈로스트 인 홍콩〉 쉬 정

〈그랜드파더〉 이서 감독, 〈얼굴 없는 밤〉 이작 에즈반 감독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 개릭 디온



소통과 교류의 장  
NAFF 개막!

2016.07.26  
TUE

06

시네마



FOR PICNIC  
FOR WORK  
FOR PLEASURE

스카이라이프  
3.14planet.com

새로운  
희망이  
시작 되는 곳!



최상의 진료, 최고의 만족, 최대의 감동! 순천향이 함께 합니다.

SCH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진료예약 : 1899-5700(콜센터)



# BIFAN BOARD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4

5



김중혁, 이동진(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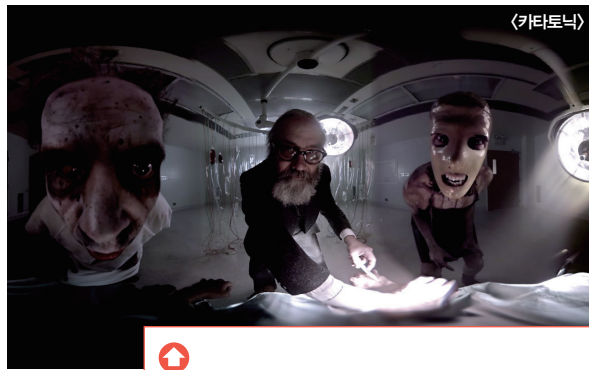
## 이동진, 김중혁이 말하는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

7월24일 오후 8시40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 상영 후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소설가 김중혁이 참석한 스페셜 토크가 열렸다. “두 시간 전 단편 소설을 탈고하고 왔다”는 소설가 김중혁은 “글이 안 써지고 쓸쓸할 때마다 꺼내보는 영화”라며 작품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밝혔다.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보통 청춘영화는 청춘을 지나온 사람이 그 시절을 이상화하며 만든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청춘 속에서 해매는 현재진행형의 상황을 다룬다”며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영화의 특이점을 짚었다. 오랫동안 팟캐스트에 함께 출연해 온 두 게스트의 호흡이 빛나는 GV였다.



## GV는 계속된다

폐막식 전날인 목요일까지 GV는 계속된다. 7월26일 오전 11시30분 〈금붕어, 여자〉 이시이 가쿠류 감독 (CGV부천 3관), 27일 오후 5시50분 〈아래층 사람들〉 아담 조웨이 감독(CGV부천 2관), 28일 오후 8시30분 〈세상에서 고양이만 사라진다면〉 나가이 아키라 감독 (부천시청 어울마당) 등 놓치면 후회할 GV가 준비하다. 영화제를 만끽하는 또 하나의 방식 GV,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 영화, VR을 만나다

VR 체험 행사가 부천시청 앞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7월26일 오후 5시에는 풀돔(FullDome)에서 ‘VR 패넬토크’가 열린다. 토크에는 리필름 대표 이수성 감독, VR 콘텐츠 개발자 팀 희스 등 총 4명이 참석해 VR이 영화와 결합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할 예정이다. 영화와 VR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꼭 체크해 두길 바란다.



황윤준



## 음악으로 기운 충전!

축제의 열기는 주중에도 이어진다. 7월26일 오후 4시 30분 U-Plex 중앙광장에서 NE Band의 공연이 열렸다. 제주도 남읍에서 결성된 어쿠스틱 그룹 NE Band는 청량감 넘치는 연주로 더위에 지친 관객들의 피로를 달랬다. 주말이 지나 비교적 한산한 거리를 가득 메운 휴식 같은 음악에 관객들도 잠시 발길을 멈추고 다음 관람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 무브먼트 공연은 7월 28일까지 U-Plex 중앙광장과 CGV부천에서 이어진다.

## 말.말.말

“감독이 나랑 비슷한 것 같다. 무모해 보일만큼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드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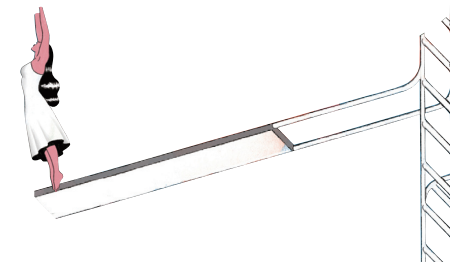
『사무라이 픽션』 스페셜 토크 중 가수 윤종신.

“기왕이면 착한 나쁜 놈이면 좋겠네요.”

『판타스틱 단편 걸작3』 GV 중 〈황천〉의 지대한 배우, 착한 역과 악역 중 어떤 역할이 더 좋냐는 질문에.

“20대 무렵의 나는 완전히 미쳐있었다.”

『환상영화학교 ‘영화제작의 삶’에 멘토로 참여한 니시무라 요시히로 감독, 학생들에게 창작의 열정에 관한 조언을 들려주며.



권영랑



## 20/20/20, 흥미로운 시간의 재해석

‘시간을 달리는 BIFAN 특별전 [20/20/20]’이 7월22일부터 31일까지 부천시의회 갤러리 및 판타지스트리트 일대에서 전시 중이다.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에 선정된 20편의 영화를 20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재해석하는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와 관객들의 만남의 자리가 열렸다. 7월24일 오후 5시 부천시의회 홀에서 열린 오프닝에는 이강훈 미술감독, 김세운 프로그래머 그리고 이번 영화제 포스터 디자인을 맡은 최지욱 작가 등 전시에 참여한 여러 작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6.7.26

## EVENT

16:00 U-Plex 중앙광장  
무브먼트 - 낭만이다  
18:30 부천역 마루광장  
판타스틱 오픈토크 - 장근석  
19:00 CGV부천역  
무브먼트 - 크림파스타

표지사진 오계욱

발행인 김충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송경원 윤혜지  
객원기자 김수빈 김은솔 이호준  
사진 오계욱 권영랑  
디자인 김은 김지원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  
전화 032-327-6313  
팩스 032-322-9629  
씨네2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구독문의  
1566-9595

20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06





〈치하야후루 파트 1〉

## 치하야후루 파트 1

CHIHAYAFURU PART I

고이즈미 노리히로 | 일본 | 2016년 | 111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 치하야후루 파트 2

CHIHAYAFURU PART II

고이즈미 노리히로 | 일본 | 2016년 | 102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일본 순정만화와 스포츠만화,  
청춘 성장담 중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관객이라면  
필수 관람작.

치하야(히로세 스즈)와 타이치(노무라 슈헤이)는 시골에서 전학 온 아라타(맛켄 유)에게 흥미를 보인다. 의젓한 아라타는 둘에게 가루타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가루타는 마주 본 두 사람이 해설자가 낭독하는 시구(詩句)를 듣고 있다 뒷문

장이 쓰인 카드를 먼저 쳐내는 일본의 전통 게임이다. 치하야는 아라타를 따라 가루타에 입문하고 과연 아라타의 짐작대로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짝 셋이 함께 가루타를 하자는 약속

은 빛이 바랜다. 사정이 생겨 아라타가 가루타를 그만두게 된 것이다. 치하야는 언제나 아라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가루타를 계속해나간다. 잠시 멀어졌다가 고등학교에서 재회한 치하야와 타이치는 교내에 가루타 서클을 만들어 선수권 대회까지 출전한다. 강력한 적수 앞에서도 즐겁게 가루타를 하는 치하야의 모습을 본 아라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린다.

원작 〈치하야후루〉는 순정만화의 정서와 스포츠물의 박진감이 훌륭하게 결합한 만화다. 영화 두 편을 모두 연출한 고이즈미 노리히로 감독은 원작을 거의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겨 왔지만, 주인공 치하야는 원작과 달리 타이치의 시선으로 설명한다. 가루타에 관한 한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는 치하야는 타이치의 시점을 통한 덕에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인물로 보이는 효과를 얻었다. 찰나의 한 수로 승패가 갈리는 가루타 경기의 긴박한 순간은 슬로모션으로 연출돼 시선을 붙든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치하야후루〉시리즈를 스포츠 영화처럼도 보이게 만듦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소년, 소녀의 건강한 매력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함께 흔드는데 특히 히로세 스즈가 혈령하면서도 강인한 치하야의 양면적 매력을 훌륭히 연기했다. 최근 세 번째 시리즈의 제작도 확정됐다.

윤혜지



## 얼굴 없는 밤

THE SIMILARS

이작 에즈반 | 멕시코 | 2015년 | 89분 | 부천 초이스: 장편



## 내 친구 아부렐레

ABULELE

조나단 제바 | 이스라엘 | 2014년 | 96분 | 패밀리 존: 장편

깜찍한 괴물과  
함께하는 성장영화

자신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슬픈 나날을 보내던 10살 소년 아담. 소년은 이야기로만 전해 들던 ‘아부렐레’라는 괴물을 만나 친구가 된다. 검은 털과 노란 눈을 가진 아부렐레는 그 존재를 믿는 아이에게만 나타났다가 그들이 성장할 때 비로소 떠나가는 성장기의 친구다. 커다란 덩치의 괴물 아부렐레와 작은 체구의 소년 아담은 그들을 생포하려는 특수 부대에 맞서 모험을 펼친다. 빠른 전개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활용한 모험담이 유쾌하고 흥미롭다. 특히 화려한 CG가 아닌 소박한 특수효과는 친근감을 더해주는 장치다. 괴물의 존재를 믿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한때 괴물의 존재를 믿었던 어른 모두를 위한 귀엽고 따뜻한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단편 영화 〈10〉(2009)으로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은 조나단 제바 감독의 장편 데뷔작.

김은솔 객원기자

이것이  
서스펜스다

혁명의 전운이 감돌던 1968년 10월의 멕시코. 버스터미널이 폭우로 고립된다. 출산을 시작한 아내에게 가다가 길이 막힌 율리아는 터미널로 들어선다. 이후 임신부, 의사생, 중년 여성과 여인의 아픈 아이가 하나둘 모여든다. 터미널을 지키던 청소부와 매표원이 난데없이 발작을 일으키자 율리아는 사탄으로 지목된다. 그때부터 고립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경계를 숨기지 않는다. 히치콕을 연상케 하는 고전적 화법의 공포 스릴러물이다. 미지의 인물들, 고립된 공간, 고조되는 음악, 냉자한 폭력과 유혈 등 서스펜스를 돋우는 요소가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탄탄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기시감과는 거리가 멀다. 라디오 음악과 빗소리를 섞고, 공간을 연극무대처럼 활용해 인물별로 화면을 나눠담는 등 한정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긴장감 넘치는 장편 데뷔작 〈인시던트〉(2014)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이작 에즈반 감독의 두 번째 영화로, 시체스국제영화제 블러드 윈도우상을 수상했다.

김수빈 객원기자



## 라라

RARA

페파 산 마르틴 | 칠레, 아르헨티나 | 2016년 | 92분 | 패밀리 존: 장편

아이나, 어른이나 삶에  
노련한 사람이 어딴가요

부모의 이혼 후 12살 소녀 사라에겐 '두 명의 엄마'가 생겼다. 소녀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 그녀의 가족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달라졌다. 사라는 레즈비언 엄마의 애정행각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생도, 양육권 쟁탈을 벌이는 아빠도 모든 것이 싫고 숨기고 싶다. 다가오는 열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사라의 고민은 점점 깊어간다. 〈라라〉는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레즈비언 커플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사춘기 소녀 사라의 고민을 통해 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벽을 보여준다. 복잡한 어른들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소녀의 세세한 감정변화가 눈길을 끈다. 배우 출신인 여성감독 페파 산 마르틴은 아직 어리고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소녀를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해 낸다. 2016년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초청작.

김은솔 객원기자



## 徐 峥

〈로스트 인 홍콩〉쉬 정 감독

내 꿈은  
이미 실현됐다

중국의 슈퍼스타가 왔다. 코믹부터 진지한 드라마까지, 장르를 가로지르는 중국의 배우 겸 감독 쉬 정이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찾았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늘 한국에 올 이유를 찾고 싶었다”는 그는 직접 연출하고 출연한 코미디 영화 〈로스트 인 홍콩〉(2015)을 선물처럼 들고 왔다. 지난해 홍콩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른 이 작품은 처가 가족과 홍콩 여행을 갔다가 첫사랑의 홍콩 방문 소식을 접한 중년 남자 쉬 라이의 얘기다. 매형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는 처남 때문에 첫사랑과의 재회는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고군분투가 웃음을 자아낸다. 〈로스트 인 홍콩〉엔 홍콩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가득하다. 〈영웅본색〉(중경삼림)〈아비정전〉(유리의 성) 등의 음악, 포스터, 명대사, 명장면이 총동원된다. “어렸을 적 보고 들으며 자란 홍콩의 문화를 스크린에 옮겨왔다”고 인용된 명대사 중 하나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즉석에서 “앞으로 그 누구도 다시는 총으로 내 머리를 겨누지 못하게 하겠어”라며 〈영웅본색〉의 명대사를 읊었다. 액션과 코미디가 몰아치다가도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의 정서는 깊어진다. “중년 남성이 겪는 감정의 곤경을 그리고 싶었다.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엮혔는지 알아야만 결지해지할 수 있다.”

〈로스트 인 홍콩〉은 〈인재경도〉(2010), 〈로스트 인 타이랜드〉(2012)에서 이어지는 ‘로스트 3부작’ 중 하나다. 앞선 두 작품 모두 쉬 정과 왕 바오창의 찰떡같은 호흡이 돋보이는 버디 무비다. 이번 영화 속 쉬 정은 파트너는 왕 바오창이 아닌 바오 베이얼로 바뀌었다. “왕 바오창과의 호흡으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리즈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번 작품 속 처남 역할은 바오 베이얼의 색깔이 더 잘 어울려 그와 함께 하게 됐다.” 쉬 정 감독은 로스트 시리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리즈물도 구상중이다. 어떤 장르에 도전하고 싶냐는 질문에 “배우 쉬 정은 마음을 건드리는 시나리오면 어떤 역이든 좋고, 감독 쉬 정은 아무래도 희극에 자신 있다”고, 영화 속에서 쉬 라이는 처남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다. 그 질문을 현실로 옮겨와 쉬 정 감독에게 물었다. “내 꿈은 이미 실현됐다. 영화를 찍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지 않나.”

글 김수빈 객원기자 · 사진 오계욱

## Garrick DION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 개릭 디온 프로듀서

## 균형과 취향 사이의 길 찾기

좋은 이야기를 찾아내서 가공하고 관객에게 선보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무수히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듀서다. 개릭 디온은 니콜라스 윈딩 레프 감독에게 칸영화제 감독상을 안긴 〈드라이브〉(2011), 제이크 질렌할 주연의 〈나이트 크롤러〉(2014), 2015년 아카데미 3관왕에 빛나는 〈위플래쉬〉(2014)를 탄생시킨 프로듀서다.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라면 프로듀서는 가히 발굴의 예술이라 해도 좋겠다.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으로 BIFAN을 찾은 개릭 디온에게 좋은 기획의 기본에 대해 물었다.

심사위원으로 BIFAN을 찾은 계기가 있다.

예전부터 애정을 가진 BIFAN이 20주년이라고 해서 어떤 역할이라도 꼭 오고 싶었다. 원래는 NAFF 관련 행사로 방문하려 했는데 일정 조율 중 심사위원을 제안 받았다. 기회가 되면 환상영화학교의 멘토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

영화는 많이 봤나. 인상적인 영화를 몇 편 꼽는다면.

지금까지 7편을 봤고 오늘 3편을 더 볼 예정이다. 〈어둠의 여인〉은 제니퍼 켄트 감독의 〈바바дук〉(2014)이 연상되는 참신한 공포다. 〈휘귀전쟁〉은 첫 장면이 너무 좋았다. 완벽한 영화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강렬했다. 그리고 〈곡성〉의 굿하는 장면은 최고의 장면 중 하나다. 한 번에 소화하기 힘들다. 꼭 다시 보고 싶다.

2014년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은 〈위플래쉬〉는 10주 만에 완성됐다. 심지어 촬영은 19일 만에 완료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획이 가능했나.

2013년 선댄스 단편부문에서 수상한 영화를 장편으로 만든 거다.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투자를 결정했다. 워낙 많은 시나리오를 읽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꼼꼼히 읽을 수 없는데, 이 작품은 토씨 하나 빠지 않고 다 읽었다. 한 곡의 음악처럼 작곡된 시나리오였다.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머릿속에 너무 분명한 그림이 있었고, J.K.시먼스가 단편에도 출연했기 때문에 배우 문제도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첫 편집본은 이제껏 내가 본 첫 편집본 중에 가장 뛰어났다.

축박한 일정은 원래의 계획이었나. 아니면 감독이 바란 바였나.

투자가 결정된 후 다미엔은 선댄스 일정에 맞추고 싶어 했고 그게 가능하

다는 걸 증명해보였다. 노력하지 않는 감독은 없지만 24시간을 전부 쏟아붓는 이는 의외로 흔치 않다. 다미엔은 그렇게 했다. 그야말로 완전한 몰입이었는데 건강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곤 차마 입 밖에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먼저 염두에 두는 점은 무엇인가.

감독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려 하고, 투자자들은 누구도 돈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양쪽의 요구를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다만 둘 중 무엇이라도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1억 달러를 버는 게 목표였다면 〈위플래쉬〉는 없었을 거다. 그렇다고 벽에 걸린 그림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다. 투자사, 창작자, 그리고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작품은 없지만 거기에 한 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다. 그게 프로듀서의 몫이다. 〈드라이브〉, 〈나이트 크롤러〉는 나름 균형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픽사의 작품은 모두 챙겨본다. 이야기와 캐릭터를 그만큼 조화롭게 뽑아내는 곳도 드물다.

프로듀서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조언한다면.

기획이란 결국 좋은 재료와 재능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여러 사람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인의 취향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란다. 조정자의 역할에 치우치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걸 잊어버리기 쉽다. 어느 순간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건강한 불안은 때론 좋은 자극이 된다. 무엇보다 열정이 필요하다. 이걸 자질이라기보다는 의지의 영역이지만 경험상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글 송경원 · 사진 오계욱







약자에 대한 보호망을 생각하다

## 〈그랜드파더〉이서 감독

이서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 〈그랜드파더〉는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기광(박근형)이 뜻하지 않게 손녀 보람(고보결)을 만나며 삶의 전환기를 맞이한다는 내용의 하드보일드 복수극이다. “약자에 대한 보호망에 있어 이 세계는 얼마나 무심한가.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지 생각해 볼 계기를 주고 싶었다.” 전작 〈사람을 찾습니다〉(2008) 〈타투〉(2014)에서부터 이어져 온 “누아르에 대한 경의”도 여전하다. 박근형은 고독한 투사로 변신해 강력히 시선을 끈다. “8월 한여름에 촬영했고 일정도 빠듯해 힘든 현장이었다. 배우들 고충을 생각해 액션을 간결하게 짰지만 박근형 선생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 다치시면 큰일이라 내 가슴이 다 철렁했다. (웃음)” 대신 〈그랜드파더〉의 액션은 현실적이다. 기광이 노인임을 고려해 근접 전투보다 낫은 사냥총을 활용한다. (아버지연합의 가스통 시위를 비틀어) 폭탄 대신 LPG 가스통을 터뜨리고, 알루미늄 음료수 캔까지 무기로 쓴다. “가스통 폭발 장면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기광의 과격한 감정을 그렇게라도 드러내면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보람은 강아지의 이름을 ‘보리’로 짓는다.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에서 따온 이름이다. 핏빛 드라마의 끝은 푸른 희망과 젊음으로 매듭짓고 싶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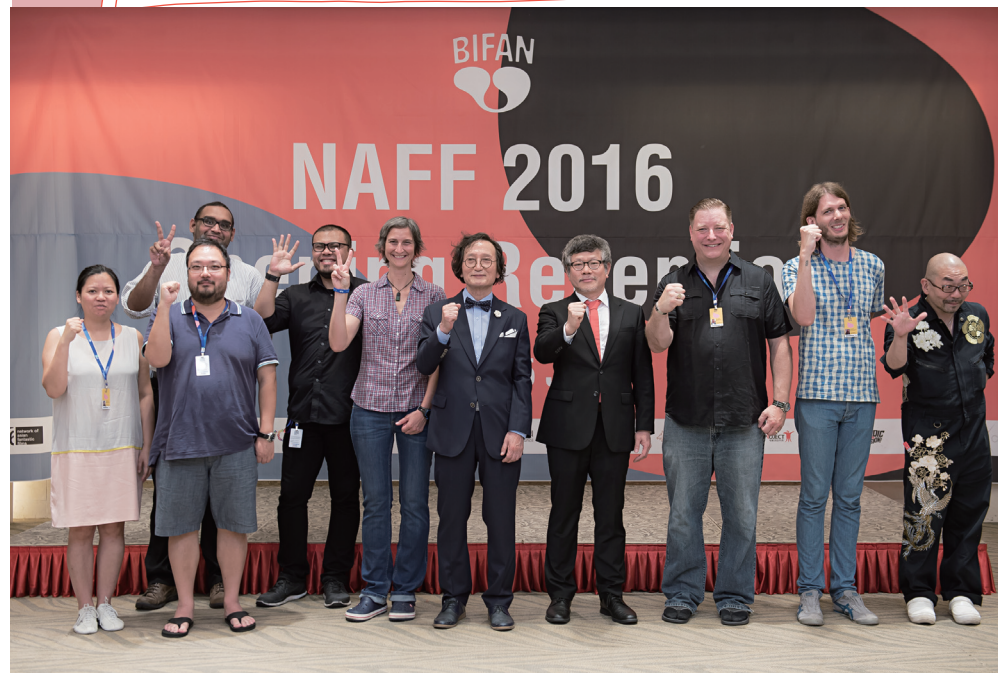
글 윤혜지 · 사진 오계옥

고전 공상 과학 영화를 향한  
러브레터

## 〈얼굴 없는 밤〉이작 에즈반 감독

〈얼굴 없는 밤〉은 화면 색감, 음악, 촬영을 비롯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까지 고전의 향기가 물씬 난다. “1960년대 공상 과학 영화에 대한 헌사이자 러브레터다.” 고전적인 영화의 형식에 비해 품고 있는 이야기는 참신함으로 빛난다. 터미널에 고립된 8인의 성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전형적인 멕시코 남자” 한 명의 얼굴로 바뀌어간다. “1968년 멕시코 틀라텔룰코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당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똑같아지기를 바랐고 대중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노이로제가 있었다.” 감독은 부조리한 역사를 공포와 판타지로 표현했다. 8인의 등장인물은 “멕시코 사회의 축소판”이다. 마법과 신화를 믿는 멕시코 문화, 타인을 위한 서비스에 길들여진 노동자층의 모습이 그 속에 담긴다. 살아있는 인간은 물론 달력 속 얼굴조차 똑같이 바뀌어가는 상황은 터무니없이 웃기기도 하다. “무섭고도 코믹한 영화. 맞다. 그래서 영화가 기묘하고 이상한 돈을 갖게 되었다. 사실 이상한 것과 웃긴 건 종이 한장 차다.” 이번 부천영화제의 영화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는 감독은 매일 네다섯 편의 영화를 보는 중이라고. 남다른 공포와 유머 감각을 지닌 멕시코 영화의 기대주가 어찌면 지금 극장 안 당신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글 김수빈 객원기자 · 사진 권영탕



## 새로운 아이디어 개척의 장으로

〈NAFF 2016 심사위원〉조코 안와르 감독

심사위원을 맡은 조코는, 영화제는 자주 찾았지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매우 기쁘고 기대된다. 특히 2007년에는 연출작인 〈비밀〉(2007)이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상영된 만큼 내게 BIFAN은 익숙하고 의미 있는 영화제다.

총 11개국 16편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은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시놉시스에 잘 녹아 효과적으로 드러나는지 고려했다. 선정된 작품들이 대부분 좋았으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인상을 준 작품들도 몇 있었다.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라 빨리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모두스 아노말리〉(2012)로 NAFF 프로젝트에 선정된 경험에 있다. 5년 전에 선정되었다. 프로듀서와 함께 미팅에 참석하여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았다.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다듬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같은 지원과 협조가 개봉 전까지 지속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감독들도 따뜻한 분위기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

출품하고자 하는 감독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NAFF는 특정 장르에 국한된 작품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작품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캐릭터와 스토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화제성만 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전하는 의지가 보이고 그것이 잘 표현되어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런 용감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들의 도전을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 소통과 교류의 장을 열다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개막

‘판타스틱’ 영화의 제작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이하 NAFF)의 개막 리셉션이 7월25일 저녁 7시 고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최용배 BIFAN 집행위원장은 “5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BIFAN Industry Gathering, 이하 B.I.G)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한 ‘잇 프로젝트’, 교류와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말레이시아와 ‘노르딕 장르 인베이션’, 교육 부분인 ‘환상영화학 교’로 나누어 진행된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이한 NAFF는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실질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잇 프로젝트’는 전 세계 27개국 238개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지원’ 기록을 세웠으며, 총 11개국 16편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김건 감독의 〈멈추지마〉를 비롯해 김광빈 감독의 〈클로젯〉, 이상우 감독의 〈식인 할멈〉, 김현우 감독의 〈갈고리〉, 스티븐 베이커 감독의 〈블랙 록〉, 마츠모토 하나 감독의 〈휴먼스 파츠 컴퍼니〉 등이 포함되었다. 선정작들은 국내외 영화인들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영화 투자 및 제작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국가의 장르영화 프로젝트를 조명하는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부문에 선정된 국가는 말레이시아다. 공개된 다섯 편의 프로젝트 선정작은 잇 프로젝트 선정작, 노르딕 장르 인베이션 선정작과 함께 현금 제작비 및 후반 작업 지원을 두고 경합을 벌인다. 수상작은 7월28일 저녁 7시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B.I.G 폐막식 및 NAFF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글 김은솔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 FEATURE

## Experience Next Generation Virtual Reality Here at BIFAN

Thomas Nam's (NAFF General Director at BIFAN) move to have a VR dome at BIFAN reflects the progressive attitude to digital media that BIFAN has always and continues to have under new incumbents, Festival Director CHOI Young-Bae and Committee Chairman CHUNG Ji-Young. The virtual reality dome comes to us via its creator Ed Lantz (Vortex Immersion Media president and CEO) and his collaborator John Heinsen (Founder of Bunnygraph Entertainment). Both long time experts in their respective fields, the two men are great visionaries of the Virtual Reality medium.

### The Dome at BIFAN

Ed Lantz: "We're here to just give a taste to show what's possible ... (the full potential of this medium hasn't been reached yet, it's going to take some experimentation to get there) it's an emerging format and I would say check this out you ain't seen nothing yet."

John Heinsen: 'It's a really exciting space, its all about creativity and invention and that's why people should come. There's the technical side of it and the content side of it, which is all really interesting for people to come and see. It's really the future of what cinema represents and it's how technology can power storytellers and artists to expand and tell their stories'

### VR and Korea

Ed Lantz: "I'm impressed with (Korea) and people are very eager to jump on new things and people seem very fast at adapting ... I'm excited by Korea, it's good energy and vibe ...

Now's the time to get familiar with the space ... ultimately it's the right time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and build competency] it's fundamentally important for media makers to understand the space and stay up with it because 10 years from now it's going to be a different world for us."

John Heinsen: 'I'm an advisor to a company in LA that's actually the North American office of a Korean company that just launched here. It's a video platform called winvention, the company is called Titan Platform in Gangnam ... through that CEO I came to know Ed (Lan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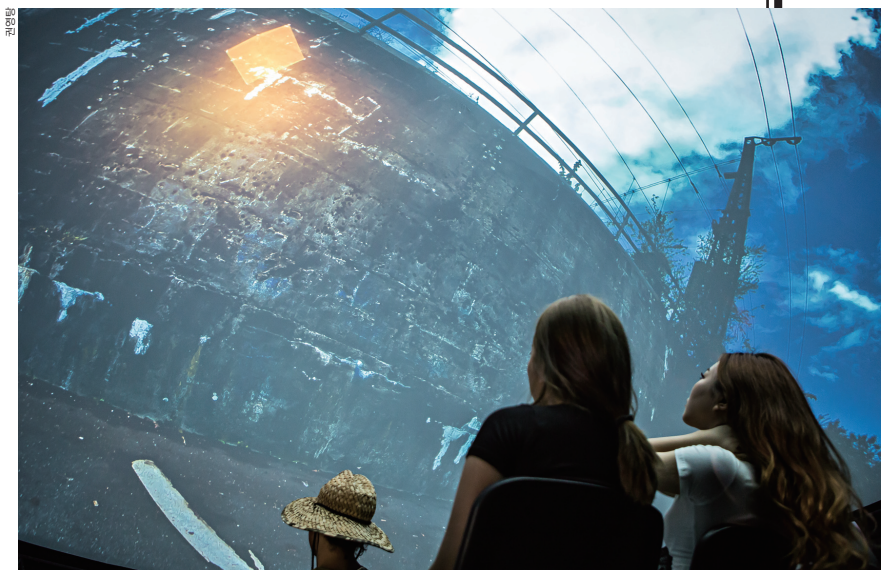
### Content/Filmmakers and VR

John Heinsen: "What's so exciting about these times is you can write the rules and break them because there are no rules ... a lot of studios

are worried about the money they're losing, they're worried about shrinking audiences, they're worried about piracy. Well the future is not about old money it's about finding the new money and technology enables people to do that. The problem is there's no standardization yet and once there is, there will be those revenue streams.'

Ed Lantz: "Filmmakers can't get funding to make films when there's not enough screens, developers who provide the screens say, 'where's the killer content?' They don't want to make theaters when there's no content, so the way we have dealt with that is we've been doing these pop up domes where we build the domes and the show and now, it's a complete experience"

Chocoshrek



## REVIEW

## Angels, Devils, and The Neon Demon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the female image is an incredibly potent subject, one that is belatedly receiving more mainstream coverage thanks to the rise of feminist discourses. The themes have been explored by filmmakers before, but rarely have they been as mesmerising and visceral as Nicolas Winding Refn's psychological horror *The Neon Demon*. Jesse (Elle Fanning) is a beautiful young girl from out of town, who travels to the big city in order to pursue a career as a model. Luckily for her, Jesse has a special 'something' that makes her highly desirable, resulting in a rapid rise to prominence and inciting the ire of those more established in the business. As Jesse delves deeper into the world of professional modelling she begins to lose herself in a deluge of narcissism and neon. Due to controversial manner in which female appearance is explored, *The Neon Demon* has proved to be quite a divisive film yet there's no denying the enchanting power within. Refn's masterful use of color of space is stunning, employing them to symbolise the vacuous nature of the industry and Jesse's descent from innocence into egomania. Locations constantly entrap the women within a web of mirrors, neon and costume where the only power resides in their appearance, a construction that Refn continually points to as male generated. As such the extremes that the women go to are horrific, but are a manifestation born out of the misogynistic world in which they reside. The use of sound is also incredibly impressive throughout *The Neon Demon*, as periods of unsettling silence are interjected with Cliff Martinez's superb electronic score, combining with the sumptuous visuals to create a disturbing tale that resonates long after the credits roll.

Simon McEnteggart

## INTERVIEW

## Fantastic Film School Students



Ying Xian Lim.

As part of NAFF 2016, 24 emerging filmmakers from 15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Fantastic Film School (FFS), a workshop taught by established professionals in the industry to train the next generation and support their career advancement. Here's what they have to say about the program:

"I'm currently preparing my first feature film, *Lost in Chinatown*, so I'd like to learn how to present and market my own film project. Also, I want to learn about the ins-and-outs of international

co-production, financing, and markets. I've never attended these kind of genre film makers labs, so it's quite a new experience for me. I've been to the Busan AFA and also Tokyo Talent, but they're fairly different. They're more focused on drama and arthouse film, so it's quite new for me and exciting."

**Chih-Wei Chang, Taiwan (Independent filmmaker, PhD program Chung-ang University)**

"We usually do more indie and arthouse films, but in recent years we've gone into genre filmmaking. We're in pre-production for a zombie film right now, and we are also in development for an action thriller based on Na Hong-jin's *The Chaser*, so I thought this would be the perfect place to learn more about genre filmmaking. I think I'm mostly looking forward to...well everything! I'm quite open to all the opportunities that are coming."

**Ying Xian Lim, Malaysia (Producer at Greenlight Pictures)**

"I wanted to have an opportunity to meet some people who love film like me and make a variety of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and also get some good advice from the lecturers. It's a really good chance to improve my skills and make friends. I had a really good class with Vincent Ngo, he gave us good tips about how to write, and how to make a real film in short sentences and concepts. I learned a lot and enjoyed the class. I'm most looking forward to the writing classes."

**Euijin Lee, South Korea (Screenwriter)**

Simon McEnteggart





## SCHEDULE

영화명 원제 | 등급 | GV | 예매코드 | 극장

**1회차** 세컨 찬스 A Second Chance | 11:30 | ㉠ | 501 | SS 카지노의 왕들 파트 1 Comic 8: Casino Kings Part 1 | 11:50 | ㉠ | 502 | FC 몽상가 The Dreamer | 11:50 | ㉡ | 508 | HYU2 금붕어, 여자 Bitter Honey | 11:30 | ㉢ | GV | 504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 11:30 | ㉢ | GV | 505 | HYU4 아멜리에+차라리 먹어주세요 Amelie of Montmartre+Melt Down | 11:30 | ㉢ | 506 | HYU5 음식이는 재수 없어 Ulsik the Clumsy Boy | 11:30 | ㉢ | 507 | HYU7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ScreenX Fantastic Short Films 14-ScreenX | 11:50 | ㉡ | GV | 503 | HYU8 네온 데몬 The Neon Demon | 11:30 | ㉢ | 549 | BST3 내 친구 아부벨레 Abulele | 11:30 | ㉢ | 509 | BST4 컬러 오브 러브 Suruga Yang Tak Dirindukan | 11:30 | ㉢ | 510 | BST6 **2회차** 마이 베베 러브 My Bebe Love #KiligPaMore | 14:30 | ㉢ | 511 | SS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 14:30 | ㉢ | GV | 512 | CH 링+열 개의 계단 Ring+The Ten Steps | 14:50 | ㉡ | 513 | FC 중독노래방 Karaoke Crazyes | 14:50 | ㉢ | GV | 514 | HYU2 카츠라기 살인사건 The Katsuragi Murder Case | 14:30 | ㉢ | GV | 515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 14:30 | ㉢ | GV | 516 | HYU4 암살 Assassination | 14:30 | ㉢ | 517 | HYU5 얼굴 없는 밤 The Similars | 14:50 | ㉢ | GV | 518 | HYU6 초록 들판의 노란 꽃들 Yellow Flowers on the Green Grass | 14:30 | ㉢ | 519 | HYU7 마이 빅 나이트 My Big Night | 14:50 | ㉢ | 520 | HYU8 크리처 디자이너: 에일리언에서 워킹데드까지 Creature Designer: The Frankenstein Complex | 14:30 | ㉡ | 521 | BST3 셸 콜렉터 The Shell Collector | 14:30 | ㉢ | GV | 522 | BST4 캔터빌의 유령 The Canterville Ghost | 14:30 | ㉢ | 523 | BST6 오픈 The Open | 14:00 | ㉡ | 1501 | OA 레이더스!: 사상 최고의 팬필름 Raiders!: The Story of the Greatest Fan Film Ever Made | 14:00 | ㉢ | 1502 | SH **3회차** 극장판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이다냥! Yo-kai Watch the Movie: It's the Secret of Birth, Meow! | 17:30 | ㉢ | 524 | SS 좀비 스키장 Attack of the Lederhosenzombies | 17:30 | ㉢ | 525 | CH 킹덤+췌(한) (인터미션20분) Kingdom+Sweat | 17:50 \*intermission 20minutes | ㉢ | 526 | FC 어떻게 헤어질까 How to Break up with My Cat | 17:50 | ㉢ | GV | 527 | HYU2 오토헤드 Autohead | 17:30 | ㉢ | GV | 528 | HYU3 불량공주 모모코 Kamikaze Girls | 17:30 | ㉢ | 529 | HYU4 레퀴엠+죽음의 춤 Requiem for a Dream+Danse Macabre | 17:30 | ㉢ | 530 | HYU5 바스킨 Baskin | 17:50 | ㉢ | 531 | HYU6 아메리칸 사이코+살인의 막장: 술가락 살인마 American Psycho+The Horribly Slow Murderer with the Extremely Inefficient Weapon | 17:30 | ㉢ | 532 | HYU7 스위스 아미 맨 Swiss Army Man | 17:50 | ㉡ | 550 | HYU8 다다다다 세븐틴 Dadadada Seventeen | 17:30 | ㉢ | GV | 534 | BST3 길라지와 랩소디 Illogically Sane | 17:30 | ㉢ | GV | 535 | BST4 라라 Rara | 17:30 | ㉡ | 536 | BST6 **4회차** 히어로 Hero the Movie | 20:30 | ㉡ | 537 | SS 니키타 Nikita | 20:00 | ㉢ | GV | 538 | CH 날, 보러와요 Insane | 20:50 | ㉢ | GV | 539 | HYU2 고백 Confessions | 20:30 | ㉢ | 540 | HYU3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Shorts | 20:30 | ㉡ | GV | 541 | HYU4 벨벳 골드마인+먼지아이 Velvet Goldmine+Dust Kid | 20:30 | ㉢ | 542 | HYU5 무법자와 천사들 Outlaws and Angels | 20:50 | ㉢ | GV | 543 | HYU6 도리화가 The Sound of a Flower | 20:30 | ㉡ | 544 | HYU7 빌마크 2 Villmark Asylum | 20:50 | ㉢ | GV | 545 | HYU8 우리는 고깃덩어리 We Are the Flesh | 20:30 | ㉢ | 546 | BST3 변태 가면2: 잉여들의 역습 HK2: The Abnormal Crisis | 20:50 | ㉢ | 547 | BST4 타마샤 Tamasha | 20:30 | ㉢ | 548 | BST6 그랜드파더 Grand Father | 20:00 | ㉢ | 1503 | OA 맨 인 더 다크 Don't Breathe | 20:00 | ㉢ | 1504 | SH

### 등급 Rate

㉠ 전체 관람가 General ㉡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19세 이상 관람가 Under 19 not admitted

### 상영관 Theaters

SS 송내술안아트홀 CH 시청 어울마당 FC 시청 판타스틱 큐브 HYU2 CGV부천 2관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HYU8 CGV부천 8관 BST3 CGV부천역 3 BST4 CGV부천역 4 BST6 CGV부천역 6 KM 한국만화박물관 SH 소사구청 소향관 OA 오정구청 오정아트홀

※상영일정은 영화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IFAN

### 현실의 공간을 허무는 작업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포스터 디자이너 최지옥

BIFAN 포스터 디자인 작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기존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작품 위주로 활동해왔다. 이강훈 미술감독님과 원래 친분이 있었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웃음) 최근 들어 공공기관 작업과 책 표지 등 상업적인 영역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터 디자인의 콘셉트는 무엇인가. 기괴한 장면들을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최종 작업은 현실의 공간이 무너지는 상태를 상상하면서 만들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시간을 달리는 BIFAN 특별전'에도 참여했다. 20편의 영화 중 이시이 카츠히토 감독의 <녹차의 맛>을 재해석했다. 주인공 사치코가 성인이 되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 놓은 보물 상자를 상상하며 그렸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 중에는 <이도공간>을 재해석한 오정택 작가의 작품과 <테브다스>를 재해석한 이자은 작가의 작품을 인상 깊게 봤다.

좋아하는 영화 혹은 영감을 받는 영화가 있는지. 내려티브가 명확하지 않은 영화를 좋아한다. 아무래도 이미지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각적인 인상이 크게 다가온다. 인상적인 장면들이 산만하게 머릿속에 기억되는 편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작업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번 상영작 중 관심 있는 영화는 무엇인가. 월드 판타스틱 블루 섹션의 <스위스 아미 맨>이 기대된다. 예고편을 봤는데 장면을 모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글 김은솔 객원기자 · 사진 권영랑

## CINSTAGRAM



이화정



"포스터 설치 중이에요" 축제의 거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무더위에도 각 담당 분야에서 열심히 땀나 #자원활동가 #열일중



이호준



부천에 나루토가 났다! 29일 송내어울마당 술안아트홀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나루토> 극장판 3편을 연속 상영한다는 건 안 비밀~ #무시무시한싱크로를 #나루토덕력을보여줘

한방원료



(한방원액 44%)

FDA승인(제2030950호) 피부자극테스트 중금속테스트 통과  
발명특허획득(제10-0770798호)

# 名家毛

한방 샴푸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자연 한방 고급 헤어제품  
명가모(名家毛)로 모발에 새로운 생명과 젊음을 되찾으세요!





# 세상을 보는 NOON이 달라진다.

NOON VR은 스마트폰을 결합하여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헤드셋입니다.  
사실적인 현장감과 몰입감을 주는 최적의 가상 현실을 경험하세요.



NOON VR 앱에서 BIFAN2016 상영작을 VR영상으로 감상하세요.

특허받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한 NOON VR 앱은, 자성이나 측면 제어 버튼 없이  
뛰어난 헤드 트래킹, 시선 트래킹 기술과 탭 기술을 제공합니다.

[www.noonvr.com](http://www.noonvr.com)